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

임 은 혁<sup>†</sup>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의상학과

### Origami Inspir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Eun-Hyuk Yim<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School of Art, SungKyunKwan University

접수일(2009년 4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3일)

#### Abstract

The paper-folding effect of origami signifies a planarization of the body which questions the three dimensional construction of the body in a more conventional clothing system. Un-structured, variable space posited between the body and clothes, and an absence of gender identification characterizes the planarization of the body. Origami inspiration in fashion stresses a will-to-form rather than mere bodily proportion and structure, which explores a trans-extensity that goes beyond the boundary of the body. This study inquires on the influence of origami as a method to create new vestmental space in contemporary fashion. The flat-plane clothes of origami-inspired design are no longer cut to the body and the clothes could be altered by the wearer. The space is introduced in between a three-dimensional dress-body and the body. Origami-inspired design in Japanese avant-garde fashion deconstructs the convention and promotes a symbiosis of body and clothing instead. The shape of the body is completely estranged by three-dimensional sculptures, alluding to the paper folds of origami and the movement of the body that are transmitted to the clothing through fine folding that transform into an unexpected event.

**Key words:** Origami, Planarization, Alterability, Gender-neutral, De-functionalization; 오리가미, 평면화, 가변성, 중성적, 탈기능화

### I. 서 론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몸(uncloded body)은 전통적으로 미완성의 존재로 간주되어, 불완전한 몸을 완전한 문화적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의복의 몫으로 돌려져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은 종종 의복을 위한 옷걸이로 인식되어왔다(Warwick & Cavallaro, 1998).

몸은 복식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고, 공간은 새로운 복식으로 몸을 감싼다. 몸 이미지는 몸을 둘러싼 공간과 몸의 관계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사회

적 환경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는 몸 이미지와 주변 사이의 불확정적인 공간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 공간의 수량화는 불확실하다.

초기 의복은 디자인되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반면에,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복식을 통해 인간의 몸을 감싸는 공간을 디자인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종종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을 삼차원의 구조로 해석한다.

패셔너블함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밖의 트렌드를 선호한 198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서구의 파리에 근거한 패션 시스템의 개념을 파괴하여, 극동의 '빈곤의 미학'이 '일상의 미화'라는 유럽의 귀족적인 개념과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ehyim@skku.edu

만나게 되었다(Vinken, 2005). 그들은 미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실험적인 표현으로 충격을 주고자 하였으며, 조화보다는 불연속과 대조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오프 쿠티르를 공격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개한 비서구적인 의복은 서구 패션의 허위적인 관습을 노출시켰다.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는 패션 자체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아름다움, 고상함, 완벽함의 개념을 거부했으며, 성의 구별을 제거하고 더 이상 감추거나 드러내는 데 기초하지 않는 몸과 의복과의 관계를 추구하였다. 일본 패션에서 의복의 개념은 제 2의 피부로, 의복과 몸의 관계는 급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되었고 실험적인 변형의 대상이 되었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오리가미의 종이주름을 암시하는 삼차원적인 조각에 의해 완전히 몸의 형태에서 떨어진 디자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미세한 주름으로 몸의 움직임을 통해 예기치 않은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이렇듯 몸에 관한 전통적인 재현방법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형태를 탐구하는 영감의 원천이자 표현의 방법으로 종이접기를 의미하는 오리가미(折紙, おりがみ)를 들 수 있다. 오리가미 구조를 응용한 디자인은 기존의 복식 형태와 착장 방식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인습적인 의복과 신체 사이의 관계를 떠나 의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리가미는 재단의 단순성, 신소재의 사용, 의복과 몸 사이의 공간과 그 유동성을 통해 표현되는 조형적 자유로움을 지니는 반구조적이고 유기적인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조형적·개념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오리가미는 종이 한 장을 접기만 하여서 다양한 조형을 만들어 내는 공예로,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은 종종 오리가미의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는 방식을 의복에 적용하여 규칙적이면서 복잡한 공간의 정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새로운 의복의 공간을 창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오리가미의 가능성을 탐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그 이론적 배경으로 몸의 평면화에 대한 미학적 관점을 고찰한 후, 둘째, 이를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실제 작품의 사례 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으로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및 개념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탐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비서구적인 패션이 본격

적으로 등장한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여성복 컬렉션으로 정한다.

## II. 몸의 평면화

전통적으로 서구 의복의 형태는 신체의 선을 따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아시아의 의복은 신체를 감추는 기모노와 같이 직사각형의 천을 기본으로 하여 봉제를 통해 형태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후반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들은 인체를 상하와 좌우가 있는 수직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서구의 관점으로부터 급진적으로 이탈하여 혁신적인 충격을 주었다(임은혁, 2007).

이와 같은 전통적인 서구 복식의 대상으로서의 몸의 개념이 부재하는 복식은 몸뿐만 아니라 몸 주위의 공간까지 디자이너의 표현의지의 장으로 삼으며, 전체적인 몸의 실루엣에서 이탈하여 인체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자연히 각 인체 부위에 해당하는 복식 부분은 서로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식의 실루엣을 중심으로 추상적으로 나타나, 의복은 몸을 덮는 막으로서 몸과 그 경계를 끝없이 애매하게 표현한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 등장한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구의 입체화된 의복에 그들의 전통 복식의 기본 개념인 평면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평면형의 패턴을 의복 형태에 적용시킴으로써 서양 복식의 구조에 의문을 던지고 서양 복식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복식의 입체화라는 관념을 파괴하고 몸의 평면성을 추구하여, 매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요소를 도입한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서양 복식의 구조적인 형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의 신예 디자이너들은 복식과 몸 사이의 전통적인 유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구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구조상의 완벽함에서 이탈을 시도하였다.

서구 복식은 천을 재단하는 형태화(shaping)에 기초하는 반면, 일본 뉴 웨이브(New Wave) 디자이너들은 직물의 본래의 모습을 존중하고 본질적으로 심지나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의상을 선보였으며, 착용자가 자신의 착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였고, 진동, 다트, 패딩, 구성선, 버튼과 지퍼 등 옷을 입는 지표를 사용하는 대신 천으로 몸을 겹겹으로 둘러싸고 감는 방식으로 의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비서구적인 평면적 의복 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방식으로 오리가미를 들 수 있다.

오리가미는 정사각형의 종이 한 장을 썰거나 베거나 풀칠하지 않고 접기만 하여서 기하학적인 주름과 접은 자국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조형을 만들어 내는 놀이이다. 그러나 간혹 가위질을 넣거나 화필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금·은박을 입히기도 한다(두산백과사전, 2008). 오리가미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주름이지만 다양한 접는 방법을 결합하여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오리가미는 종이접기(paper-folding)를 의미하는 일본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종이만이 그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이나 가죽도 사용된다.

종이접기는 손에서 손으로 전송되어 왔기 때문에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전통적인 일본 오리가미는 에도 시대(1603~1867)부터 행해져 왔다고 여겨지며 이미 19세기에 조형놀이로서 유행하고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과 같은 종이접기가 되었다(두산백과사전, 2008).

1960년대에 오리가미 공예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모듈을 여러 조각 이어서 만드는 모듈러(modular) 오리가미 또는 유닛(unit) 오리가미(Robinson, 2004)를 시작으로, 오리가미의 변형으로 종이에 작은 구멍을 내는 키리가미(切紙)를 포함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모듈러 오리가미 방식은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대표적인 방식으로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는 방식이 의복에 적용되어 규칙적이면서 복잡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오리가미는 정지된 대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방식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액션(action) 오리가미는 부풀려져 완성되거나, 완성 시 손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된다. 의복 구조에 사용되어 몸 위에 걸쳐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에 따라 부풀려지거나 접혀지면서 순간순간의 몸의 형태를 반영하게 된다.

오리가미 구조는 몸의 윤곽에 근거하는 서구의 관습적인 비례의 체계와 재단법을 무시하고 몸과 의복 사이의 유동적인 공간을 염두에 둔 평면적 구성방식이다. 오리가미는 의복에 적용되어 평면적인 의복패턴에 잠재적인 입체성을 부여하여 몸에 입혀졌을 때 부피와 표면적이 확대되도록 구성된다. 즉, 오리가미 재단법은 이차원적인 소재를 가지고 삼차원의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완결된 미를 이룬다.

오리가미 방식은 의복의 평면화를 통해 몸의 부재를 시도하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기존의 서양 모드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몸의 평면화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몸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차원적 평면성을 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구성의 대상으로서의 몸의 삼차원성의 인식을 부정함에 따라 발생한 몸의 평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몸의 평면적 인식을 주도한 디자이너인 카와쿠보, 야마모토, 미야케는 서구 사회의 규범에의 순응에 도전하여 의복의 관습(Sartorial Conventions)뿐 아니라, 패션의 본질과 미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준코 코시노(Junko Koshino),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부상한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와 A.F. 반데어보스트(A.F. Vandervoort),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등의 서구 디자이너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 영향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몸의 평면적 인식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에 표현된 오리가미 구조의 영향의 조형적 특징과 개념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가변적 공간성, 비서구적 평면성, 성정체성의 부재, 그리고 탈기능화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가변적 공간성

일본 뉴 웨이브 패션 디자이너들의 평면적인 의복의 근본에는 일본 전통 복식의 영향이 있다.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체 위에 착용된 후 진정한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모노는 인체형을 무시한 직선적인 재단으로 착의에 의해 완성되는 잠재적 형태를 이루어, 착용 전에 이미 형이 고정되어있는 서구 복식과는 전혀 다르다. ‘여성의 등에 단단히 묶여진 미의 표현(Norio, 1982)’이라고 종종 묘사되는 오비를 통해 기모노의 진정한 형태가 완성된다. 즉, 착용자가 그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리가미 구조 역시 의복에 적용

되어 이차원적인 의복패턴의 잠재적인 입체성이 삼차원의 몸 위에서 부피와 표면적이 확장되도록 구성된다. 즉, 이차원적인 소재가 삼차원의 인체에서 착용을 통해 완성되는 재단법이다. 삼차원적인 인체 구조를 초월한 오리가미 구조에 의한 의상은 인체 위에 걸쳐져 조형이 이루어지고,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불확정적이고 유연적인 미를 이러한 의도적인 미완성의 미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완성된다. 이는 천이 신체의 동작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변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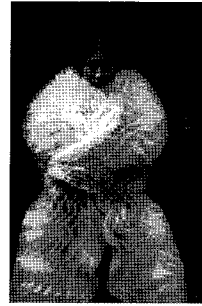
몸과 복식 사이의 가변적인 공간을 염두한 오리가미 디자인은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실루엣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의복에서의 착용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의복은 몸 위에 걸쳐지고 몸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미완성의 미학을 전달하며, 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루엣을 내포하는 새로운 조형공간으로서의 의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리가미 의상에서는 이세이 미야케가 말하는 몸과 천 사이의 ‘*ま(間)*(Fukai, 2002)’의 창조가 강조된다. 개개인의 몸은 다르므로 그 ‘*ま*’는 각각의 경우에서 독특한 개별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는 착용자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부정형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의 미학의 중심에는 “창조하기 위해 파괴해야 한다(to create you must destroy)(Menkes, 2005).”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몸과 의복 사이에는 공기(air)와 공간(space)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오리가미의 접기 효과(paper-folding effect)는 의복과 몸 사이의 눈에 띄지 않고 정의할 수 없는 거리를 디자인하고, 그 공간에 의해 평면과 입체의 상태가 끊임없이 호환된다.

이차원적인 테크닉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은 기하학적인 패들들을 몸의 실루엣과 관계없이 끼워 맞추어, 몸에 의해 불륨이 형성되게 한다. 다시 말해, 의복의 형태가 착장자에 의해 의복과 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고, 몸과 의복 사이의 공간을 통해 비구조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오리가미의 평면과 입체의 호환성을 이용한 디자인의 전형적인 예로 준야 와타나베의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2000년 F/W Techno Couture of Soirée 컬렉션을 들 수 있다(그림 1). 이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구조와 장식적 공간요소



<그림 1> 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2000 F/W collection

를 통합하며 부피감을 창조하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와타나베는 가볍고 방수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화이버(microfiber)를 사용하여 벌집구조(honey comb) 오리가미 구조를 통해 각각의 주름이 복잡한 공간의 배열을 나타내면서 잠재적인 공간적 연속체를 표현하는 오리가미 테크닉을 탐구하였는데, 수많은 가벼운 폴리에스터 합성소재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스커트는 접으면 납작해지지만 착용하면 벌집과 같이 퍼지게 된다.

와타나베의 벌집 구조 오리가미를 응용한 디자인은 접어서 만든 주름이 펼쳐져 공간이 확장되면서 이차원에서 삼차원로의 공간적 지각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접혔을 때는 2차원으로 축소되었다가, 펼쳐지면 층 사이의 공간이 발생하면서 삼차원으로 부피가 확장되면서 접힘과 펼침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몸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된다. 이는 이차원적인 의복 표면을 개방적인 삼차원의 조형구조로 입체화(양희영, 양승희, 2007)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 백 개의 나일론 오간자 층으로 구성된 와타나베의 오리가미 드레스에서 각각의 주름은 파이와 같은 층을 형성하여 벌집 구조의 물질무늬를 이루고 있다. 허리에서만 인지할 수 있는 실제의 몸 위에 풍성한 제2의 몸이 꽃과 같이 펼쳐져 기하학적 형태가 유기적인 형태를 대체한다. 각각의 구조 단위는 몸의 굴곡과 움직임에 따라 다른 각도를 형성하고 각각의 단위 사이의 공간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곡선을 반영하는 삼차원의 움직이는 입체 구조를 띠게 된다.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각각의 주름 층이 열리고 닫히면서, 마치 파장의 운동과 같이 착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가슴과 허리와 같은 볼록한 신체 부위에서는 벌집 형태의 조형체가 많이 벌어지고, 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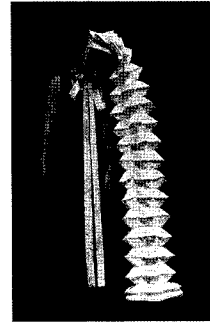
한 부분인 허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벌어지면서 몸의 굴곡에 따라 외부로 열리는 공간의 면적을 달리한다(양희영, 양숙희, 2007).

와타나베는 진보적이고 충격적인 실루엣을 창조하기 위해 종종 전형적인 패션의 형태를 변형하고 불분명하게 처리하거나 왜곡하는데, 와타나베의 오리가미의상은 복잡한 의복구성 테크닉과 음영을 이용한 조형적인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다. 그는 인체의 각 부위의 형태를 따르는 전통적인 서구적 의복구성에서 탈피하여 단일한 구조의 반복이라는 새로운 구성방식을 택하였다.

요시키 히시누마도 2004년 S/S 컬렉션 Inside-Out Two-Way Press에서 건축의 요소를 조합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별집 구조의 흰색 종이를 몸에 걸친 듯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그림 2). 히시누마는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봉제와 같은 전통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삼차원적인 의복을 만들고자 한다. 하이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그는 소재의 개발에 창의성을 집중하여 소재를 융합하여 독특한 혼성물로 만들거나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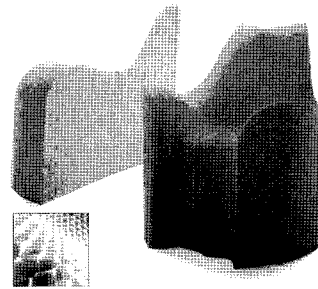
일본 디자이너들 외에도 오리가미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 디자이너 케이 이토(Kei Ito)의 헤드 드레스는 종이와 비슷한 소재인 폴리에스터 부직포를 이용한 것으로 Yolande Snaith Theatre Dance를 위해 디자인된 모자이다(그림 3). 일반적인 천에서는 얻을 수 없는 형태의 가벼움과 뽀뽀함의 결합을 이용하여, 아코디언 형태가 움직이면서 무용 동작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패션 디자인 외의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오리가미의 응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회용 장식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오리가미 테크닉을



<그림 3> Kei Ito, 헤드 드레스

자료출처: Williams, N. (2005). *More paperwork*. London·New York: Phaidon press.



<그림 4> Tokujin Yoshioka, 별집 구조의 종이 의자

자료출처: Williams, N. (2005). *More paperwork*. London·New York: Phaidon press.

적용하여 일본의 토쿠진 요시오카(Tokujin Yoshioka)가 디자인한 의자<그림 4>는 섬세하지만 매우 견고하다. 별집 구조의 종이 더미를 잘라 만든 의자의 윤곽은 앉는 사람에게 의해 형성되어 감각적이면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준야 와타나베의 의상과 같이 요시오카의 의자도 별집 구조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접으면 납작한 평면을 이루다가 펼쳐지면 3차원 형태를 만들어낸다.

## 2. 비서구적 평면성

전통적인 서구 패션은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를 지향하는 전통에 따라 테일러링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스타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뉴 웨이브 패션은 평면적인 구성방식의 비서구적인 의복을 소개하여 기성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서양의 여성복은 역사적으로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도록 구성되었으나, 이들 일본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의복구성의 구조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디테일만 있는 의상을 소개하여, 의복의 구성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규범적인



<그림 2> Yoshiki Hishinuma, 2004 S/S collection

관습에 도전하였고, 이를 통해 서구 의복 자체의 본질을 재정의 하였다.

이들의 디자인은 인체를 상하와 좌우로 구분하여 수직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서구의 관점으로부터 급진적으로 이탈하였다. 서구적으로 훈련된 시각은 좌우로 균형 잡힌 요소들을 중심으로 몸에 관한 입체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반면, 일본의 야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시각은 몸을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비서구적인 신체 개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 또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서구 패션의 시각적 표현에 반대하여 의복이 반드시 몸을 상기시키는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사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면적인 복식에서는 신체 부위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전통적인 관계가 일소됨에 따라, 면과 윤곽선의 체제가 버려지고 새로운 수준의 단순성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의상 전체가 하나의 방법에 의해 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체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즉, 의도적으로 존재의 감각보다는 부재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서구적인 평면 감각을 표현하는 오리가미 의상 역시 각 신체 부위의 형상에 따른 각각의 패턴 조각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기존 서구의 의복구성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단일한 구조의 반복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구성방식을 택하여 비서구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리가미 구조는 몸을 구속하여 몸과 의복 사이의 고정된 공간을 유지하는 테일러링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구성방식에서 벗어난 비서구적인 평면적인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오리가미 의상은 의복의 사이즈와 맞음새에 대한 서구 관점의 합리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시각적 불일치를 통해 몸에 대한 평면적인 미학적 관념을 제시한다.

단순히 의복의 겉모양이 아닌 오리가미를 통한 의복의 구조에의 도전은 몸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통적인 복식의 형태, 구조, 기능 등을 해체하고 탈구성적 표현을 통해, 이성적인 세계의 재현이 아닌 반(反) 이성적인 표현을 시도하며, 형태와 구성의 불완전성은 착용자의 개성을 담은 도구가 된다.

이와 같이, 평면적인 의복구성의 방식은 종이접기 방식인 오리가미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카와쿠보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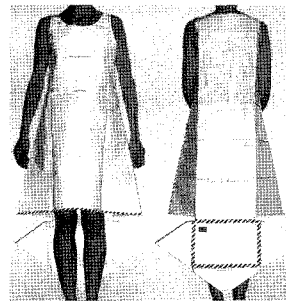
5>의 드레스는 아홉겹의 동일한 소재가 주름이 잡히고 봉제되어 만들어진 바디스와 스커트이다. 이 드레스는 아코디언 플리츠의 커다란 원통형으로, 몸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비서구적 평면성은 서구 디자이너의 컬렉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후세인 살라얀은 1999년 컬렉션에서 듀퐁(Du Pont)에서 개발한 세탁 가능하고 찢어지지 않는 타이벡(Tyvek®) 소재를 봉제하여 접을 수 있는 'Airmail' 드레스를 완성하였다(그림 6). 이 드레스의 가장자리에는 적·청색의 줄무늬 장식이 있어 접었을 때 항공우편 봉투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의복구성을 위한 종이 패턴의 속성과 항공우편의 특징을 결합하여, 피팅을 위한 다투 표시와 이를 고정시키면서 편지봉투를 봉할 스티커까지 포함되어 있다. 접었을 때 납작한 봉투의 형상을 띠는 이 드레스는 단순히 펼쳐서 착용하면 되는데, 드레스 위에 글을 써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영국 디자이너 레이첼 슬레이트(Rachael Sleight)



<그림 5> Rei Kawakubo, 1998 S/S collection



<그림 6> Hussein Chalayan, Airmail dress, 1999 collection

의 웨딩드레스는 납작한 형태로 포장되어 스커트, 바디스, 버슬과 꽃 장식을 선택하여 착용자가 스타일링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그림 7). 이는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가 비싼 가격에 비해 일회용이라는 비경제적인 단점을 해결하면서, 결혼 1주년 기념(紙婚式)을 의미하는 종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탈의시에는 평면적인 형태를 유지하다가, 착용시 삼차원의 웨딩드레스로 변하게 된다.

한편, 오리가미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이를 서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서구적 구조로 전개한 디자인이 있다. <그림 8>의 2007년 S/S Dior Couture 컬렉션은 일본풍(Japonism)을 주제로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와 일본 전통 공예 오리가미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테일러링과 드레스메이킹을 기본으로 하는 철저한 쿠티르의 의복구성방식을 바탕으로 기모노와 오리가미의 형태, 색상, 문양을 장식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리가미가 의복구성의 개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와토 가운데나 볼 가운데 등 서구 전통의 이브닝 드레스와 뉴 룩 스타

일의 테일러드 수트의 각 부위에 장식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는 오리가미 방식을 의복의 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 신체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서구 복식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이를 와타나베나 카와쿠보의 디자인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오리가미 방식을 컬렉션에 적용함에 있어 비서구적인 평면 구조로 활용하는 동양의 디자이너와 서구적인 입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장식과 디테일로만 적용하는 서양의 디자이너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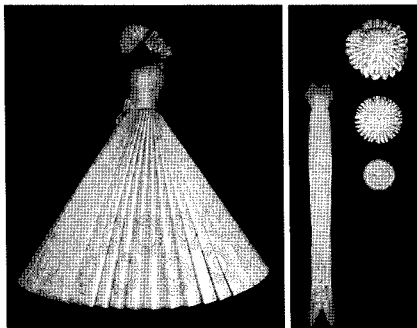
### 3. 성 정체성의 부재

오리가미 의상과 같이 의복 아래의 몸을 드러내지 않는 의복에서 성성은 종종 모호해진다.

홀랜더(Anne Hollander, 1994)는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패션에서의 형태의 근거로 강조하면서, 착용자의 성적 특징에 주의를 끄는 형태이건 아니건 패션의 형태 뒤에는 섹슈얼리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에서 표현되는 몸은 성적 분리에 의해서 강조되는 인체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다양한 가정이 허락되고 해석되는 몸이며, 성의 구분이 모호한 몸이라 할 수 있다. 복식에서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제거되면서,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 완성되는 다양한 조형적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 역할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규범이나 규제에 의해 결정되며, 의복은 성의 차이를 구성한다. 의복은 사람들이 개인의 생물학적 성을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성의 상징이나, 오리가미 의상을 통해 일본 디자이너들은 서구 의복의 규범적인 성적 특수성에 도전하였고,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이분법적 사고의 경계를 교란시켰다. 이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여성복에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지 않고 기모노에서와 같이 감추려고 하였다.

카와쿠보는 “몸을 드러내는 옷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teele, 1991).”고 하며, 여성복의 섹시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도전하였고, 몸의 윤곽선을 따르기 보다는 미완성과 은폐에서 우아함을 찾았다. 자신의 몸보다는 정신으로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옷을 디자인하는 카와쿠보는 오리가미 디자인을 통해 여성성과 섹시함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독립적인 여성을 나타낸다. 몸에 잘 맞는 서구 복식의



<그림 7> Rachael Sleight, Wedding dress

자료출처: Williams, N. (2005). *More paperwork*. London·New York: Phaidon press.



<그림 8> John Galliano, Dior Couture, 2007 S/S collection

노골적인 성성을 부정하고, 그 자체로 조형적인 형태를 지니는 겹겹의 혹은 풍성한 오리가미 의상에서 중요한 관점은 소재와 몸 사이의 공간이다.

서구 패션에서 이차적인 성적 특질을 나타내는 토르소는 코르셋과 브래지어에 의해 동여매어지고 조여지고 단단하게 형태화되어 가슴과 둔부로 분리되어 간접적으로 의복 밑의 몸을 나타낸다. 이러한 토르소가 오리가미 의상에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된다.

오리가미 의복구조의 중성적(gender-neutral) 디자인은 나체와 착장의 몸이라는 서구적인 대립을 파괴하고 몸과 의복의 공생(共生)을 추구한다. 몸은 전시의 대상이 아닌 내적 자아에 속하며 자아와 동등한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복식을 통해 새로운 구현(embodiment)의 방식이 탐구된다(Vinken, 2005).

전통적인 서구 복식에서는 재현의 대상인 몸을 삼차원으로 인식하여 의복에서 자연스럽게 여체의 굴곡을 드러내면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비해, 몸의 삼차원성을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오리가미 패션에서는 신체 부위의 특징의 표현이 배제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중성적 인체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중성적인 인체를 근간으로 기하학적이거나 구조적인 조형의 원리에 충실하여 전통적인 서양 복식의 입체성과 상징성에 의문을 제기한 복식형태이다.

#### 4. 탈기능화

몸의 평면화의 조형성을 추구하는 부정형의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에서 몸을 보는 시각은 몸의 평면화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는 몸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차원적 평면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구성의 대상으로서의 패턴화된 삼차원의 몸에 대한 인식을 거부함에 따라 몸의 평면화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다.

몸을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은, 복식과 몸 사이의 전통적인 유기적 관계뿐 아니라 서구 복식이 추구하는 입체화된 구조상의 완벽함에서 이탈한 디자인이다. 평면적인 복식은 신체적 특징이나 몸의 형태와 무관하게 단순화되어, 복식의 실용성과 기능성이 배제된다.

일반적으로 복식의 구조는 착용자의 신체 구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식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볼 때, 복식에 있어서 합리성은 합목적성 즉, 기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반면, 의복의 각 부분별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평면적인 오리가미 의상은 성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복식 부분별 몸 부위의 적합성을 해체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오리가미 디자인의 평면성을 통해 복식의 각 부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비분절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인체 부위별 기능과 형태가 무시되며, 인체나 동작이 최우선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서구 복식에서의 기표와 기의는 불일치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이는 비합리성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복식으로 기능의 거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의복의 기능 및 의복을 착용을 통한 신체의 기능을 박탈하는 탈기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누노 코퍼레이션(Nuno Corporation)은 혁신적인 소재 개발로 알려져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디자인 요소를 제공해왔다(Clark & O'Mahony, 1999). <그림 9>는 폴리에스터 소재를 오리가미 방식으로 손으로 반복적으로 접은 후 염색하여 영구적인 주름을 만들기 위해 다려진 것이다. 누노의 소재로 의복을 제작할 때는 의복이 소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꼭 맞게 재단하기 보다는 몸을 감싸는 단순한 실루엣과 디자인으로 추상적인 구조를 가지는 소재의 특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리가미를 적용한 복식 구조에서는 인체라는 물리적 구조는 무시되며, 서구적 복식 관념이 갖고 있는 입체미와 구성미가 사라짐으로써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인체미의 변형을 드러낸다. 이에 따



<그림 9> Nuno Corporation, Origami Bag and Origami Pleats

자료출처: Clark, B., & O'Mahony, M. (1999). *Techno textiles*. New York: Thames and Hudson.



른 몸의 표현은 의복의 각 부분별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몸의 각 부위에 해당하는 복식 부분의 적합성을 해체하는 탈기능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몸과 의복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조형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로서의 오리가미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오리가미 구조의 패션 디자인에서는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 무시되고 확장되어 복식과 몸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를 담은 의식 확장의 장으로 표현된다. 즉, 몸뿐만 아니라 몸 주위 공간까지 디자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평면적이고 가변적인 방식으로 에워싼다. 또한 스타일의 트렌드와 현대 패션에서의 제도화된 기능과 성성의 개념을 무시하고, 비서구적인 관점을 차용하면서 소재개발에서의 신기술과 방법을 포용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몸의 평면적 인식이라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한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과 개념적 특성은 가변적 공간성, 비구조적 평면성, 성 정체성의 부재, 그리고 탈기능화로 고찰되었다.

오리가미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인에서 몸과 의복 사이의 공간이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의복의 실루엣이 오리가미 단위의 집합적인 움직임에 의해 확장되는 것은 가변적 공간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몸을 평면적으로 인식하여 몸과 관련이 없는 의복형태에서 시작하였으나, 착의 상태에서 의복과 몸의 상호작용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몸과 의복 사이의 공간이 몸의 굴곡과 움직임에 반응하여 이를 입체화하여 외부로 확장시킨다.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구성의 대상으로서의 몸의 삼차원성의 인식을 부정함에 따라 발생한 오리가미의 상에 나타난 몸의 부재의 경향은 몸의 평면화의 조형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삼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인체의 형태를 부정하는 복식에서는 몸이 평면적으로 인식되며, 몸을 초월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복식은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복식에서는 인체의 비례와 구조보다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가 중시되며, 표현의 경향은 비구조적 평면성으로 나타난다.

오리가미 패션에서는 신체 부위 특징의 표현이 배제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통합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중성적 인체 해석이 나타난다. 또한 이에 따른 몸의 표현은 의복의 각 부분별 역할에 무관하게 제시되어, 신체 각 부위에 해당하는 복식 부분의 적합성을 해체되는 탈기능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오리가미 패션 디자인은 몸에 대한 재현의 유기적 정확성에서 벗어나, 의복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개념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현의 대상으로서의 몸에서의 이탈이 야기하는 이질성은 긴장감을 초대하고 시각의 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준다. 즉, 몸과 복식 자체의 고유한 조화나 균형이나 질서만을 가지고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긴장감이 복식에서의 오리가미 구조를 통해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7(1), 130-146.
- 임은희. (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복식*, 57(1), 50-65.
- Origami. (2008). *두산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8, 12. 13.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Clark, B., & O'Mahony, M. (1999). *Techno textiles*. New York: Thames & Hudson.
- Fukai, A. (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Köln: Taschen.
- Hollander, A. (1994). *Sex and suits: The evolution of modern dress*. New York·Tokyo·London: Kodansha International.
- Menkes, S. (2005, April 19). Yohji Yamamoto: 'Just Clothes' from the inside ou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Retrieved March 15, 2009, from <http://www.iht.com>
- Norio, Y. (1982). *The book of Kimono*. New York: Kodansha America.
- Robinson, N. (2004). *The origami bible*. London: Collins & Brown Ltd.
- Steele, V. (1991). *Women of fashion: Twentieth-century designers*. New York: Rizzoli.
- Vinken, B. (2005). *Fashion zeitgeist*. New York: Berg.
- Warwick, A., & Cavallaro, D. (1998). *Fashioning the frame*. Oxford·New York: Berg.
- Williams, N. (2005). *More paperwork*. London·New York: Phaidon press.